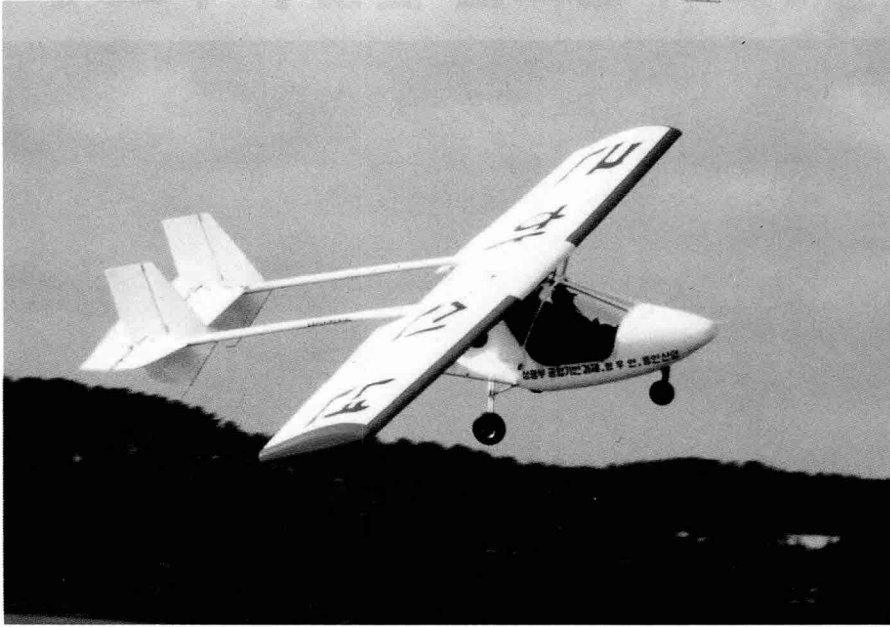


초경량항공기 국내개발, 시험비행 성공



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항공우주연구소와 (주)동인산업이 자체 기술로 초경량 항공기의 개발을 추진, 성공하였다. 초경량항공기는 완제기 또는 Kit의 형태로 판매수요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 레포츠용, 비행 훈련용, 고속도로 정찰용, 항공 촬영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반항공기의 연구개발용까지 이르고 있어 국내 항공산업의 저변 확대 및 기술력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 적인 국산 자가용항공기의 보급시대가 열린다. 1월 24일 상공부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주)동인산업은 올해 하반기중으로 레저스포츠, 선로감시, 경찰용 등으로 사용될 2인승 초경량항공기를 월 5대씩 생산,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동인산업의 지원으로 한국초경량항공기협회의 동호인 6명이 우리기술로 한국형 초경량항공기 「까치호」를 개발, 탄생시킨데 기인한 것으로, 제작비는 1억여원이 소요됐다.

초경량항공기는 지금까지 몇몇 연구소나 대학에서 실험제작한 비행기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외국에서 들여온 키트를 조립했거나 외국 설계를 그대로 복사한 것에 지나지 않아 한국형 「까치호」의 탄생은 더욱 값진 것이다.

이번에 성공한 「까치호」는 엔진만 오스트리아의 로텍스를 사용했을뿐 비행기 제작에 들어가는 나머지 모든 부품은 전량 국산제품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까치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CFM 메탈팩스社の 「새도우」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

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까치호」는 무게 180kg, 동체길이 6.5m, 날개 10m에 시속 200km, 용량 40ℓ로 한번 주유하면 2시간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인 400km를 비행할수 있는 타면조종형의 2인승 첨단 항공기이다.

또한 한국화이바와 삼善공업은 오는 94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조합이 자체 개발한 국산 5인승 경항공기 「창공호」의 양산체제에 들어가 (주)大宇중공업은 지난해부터 다목적무인헬기 개발에 착수, 오는 95년까지 실용화시킬 계획이다.

5인승 경항공기는 大韓항공, 한국화이바, 삼善공업이 한국항공연구조합을 구성, 5년간의 자체설계 및 제작과 시험비행등을 거쳐 시제품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자체중량 780kg에 항속거리가 1,500km이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국산항공기의 보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경비행기가 군사지역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할수 있도록 공역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경항공기 이착륙장을 확대지정하는 방안을 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